

-(-으)ㄴ/는 바에야

~할 바에야 —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...

상황이 이미 정해졌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단호한 결론을 끌어냅니다. 다음과 가깝지만 -느니 비교가 아니라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가장 흔한 형태	-(-으)ㄴ 바에야	하다 → 할 바에야
완료된 상황	-(-으)ㄴ 바에야	시작한 바에야
같은 뜻의 변형	-(-으)ㄴ 바에는	할 바에는
자주 함께 쓰는 말	이왕, 기왕	이왕 할 바에야
뒤 절	단호한 결론	제대로 하자
다른 구문	-(-으)ㄴ/는 바	아는 바가 없다

■ 언제 쓰나요

가장 흔한 형태는 -(-으)ㄴ 바에야로, ㄴ 짧은 형태를 바탕으로 합니다. 완료의 -(-으)ㄴ 바에야도 쓰입니다. 바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 변형인 바에는도 똑같이 맞습니다.

앞 절은 어쩔 수 없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, 뒤 절은 단호한 결론을 끌어냅니다. 과감한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: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.

부사 이왕나 기왕가 자주 앞에 옵니다. ‘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’이라는 뜻입니다.

다음과 혼동하지 마세요: -(-으)ㄴ/는 바 이것은 ‘~하는 것’을 뜻하는 형식 명사입니다. 예야가 붙어야 조건을 나타냅니다.

■ 예문

- 1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합시다.
- 2 기다릴 바에야 차라리 걸어가는 편이 낫겠다.
- 3 이렇게 살 바에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.
- 4 이미 시작한 바에야 끝까지 가 봐야지요.
- 5 기왕 만들 바에야 좋은 재료를 쓰시다.
- 6 사과할 바에야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.

■ 비교

-느니
-느니는 두 선택지를 직접 저울질하고, -(-으)ㄴ 바에야는 이미 받아들인 상황에서 출발해 결론을 냅니다.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기다리느니 겠겠다. / 기다릴 바에야 겠겠다.

-(-으)ㄴ/는 이상
이상은 정해진 사실을 받아 의무를 말하고, 바에야는 그것을 받아 선호나 결심을 말합니다.
시작한 이상 끝내야 한다. (의무) / 시작한 바에야 끝까지 가 보자. (기왕이면)

-(-으)ㄴ/는 바
같은 명사지만 역할은 무관합니다. 바 단독은 격식 있는 명사화 요소이고, 바에야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표현입니다.
아는 바가 없다. (아는 것이 없다) / 할 바에야 제대로 하자. (할 거라면)

■ 주의

- ✗ 이왕 할 바에야 날씨가 좋네요.
-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합시다.
뒤 절은 앞의 상황에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. 관계없는 말이 오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.
- ✗ 기왕 만들을 바에야 좋은 재료를 쓰시다.
- 기왕 만들 바에야 좋은 재료를 쓰시다.
르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다와 같습니다.
- ✗ 제가 아는 바에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.
-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.
‘내가 알기로는’이라는 뜻이라면 아는 바로는 씁니다. 바에야는 조건 표현입니다.